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활동 및 학교밖 학습활동에 대한 종단적 연구: 2014년과 2017년 비교*

김 경 화**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권 현 수***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오 영 석

국립특수교육원

《 요 약 》

본 연구는 2014년과 2017년 특수교육 종단조사 비교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활동과 학교밖 학습활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일 패널에 대해 2014년 보호자와 교사 1,750명, 2017년 보호자와 교사 1,282명의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활동에서 관련서비스와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은 비교 연도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속학교급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패널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관련서비스와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나, 소속학교급 내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 체험학습활동의 횟수와 방과후교육 참여 여부, 가정학습과제 부여 빈도, 통학방법에서는 비교 연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패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학교활동에서 변화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학교밖 학습활동은 2014년도와 2017년도 비교 시 통계적으로 학습활동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패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밖에서 보내는 학습활동 시간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종단연구 연구 결과는 동일한 집단의 특성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그 집단에게 어떤 자원이 투입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해주기 때문에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배치되어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함으로써 특수교육의 교육활동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 종단조사, 학교활동, 학교밖 학습활동

* 2017년 특수교육 종단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제 1저자

*** 교신저자 (hskwon@sejong, 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7년 12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이 제정이 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장애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이상 제외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성장하는 데에 관심이 옮겨져 갔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 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구미숙, 2013; 김남진, 김영희, 2005; 백종남, 황태우, 박은송, 김삼섭, 2008).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질적 성장을 위해 장애학생들에게 알맞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다.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또는 통합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한 곳에 배치하여 교육해야 하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우이구, 2015; 정주영, 정유진, 2017). 이러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어떤 학교교육을 받았으며, 받은 학교교육으로 학생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특수교육 투입, 과정, 산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특수교육의 공교육의 성과 점검은 예산, 정책,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 다양한 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며, 특수교육을 받은 개인들에 대한 중단적 추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별, 배치형태별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장기적인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 및 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2008년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에서는 3년 주기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실태조사 실시를 명하였다. 2008년 특수교육 실태조사(노선옥, 김현진, 김은숙, 박성우, 신재훈, 이정현, 2008)와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노선옥, 강영택, 금미숙, 안수경, 이미선, 이영숙, 이정현, 2011)에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두 실태조사는 교육과정 운영, 학업성취도 평가, 교수·학습자료, 방과후교육 등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 교육활동 내용 조사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들만 국한되어 있었다.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교 밖

학습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이 두 실태조사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학교 밖 학습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이는 조사 당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 교육활동을 나타낼 뿐 개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받은 학교 교육활동의 변화를 나타내다고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특수교육 중단조사 추진을 고려하게 되었다. 중단연구는 동일한 집단의 특성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그 집단에게 어떤 자원이 투입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해주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중단조사는 특수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 지표를 영역별로 살펴봄으로써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어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특수교육의 교육활동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2014년 특수교육 중단조사(안수경, 김성식, 김호진, 박지연, 최종근, 신동인, 2014)에서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포함하여 교육과정별 배치형태별을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패널을 구축하게 되었고, 2017년 특수교육 중단조사(윤종욱, 김경화, 권현수, 오영석, 2017)에서 비로소 모든 소속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교활동 및 학교밖 학습활동들에 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14년도와 2017년도 특수교육 중단조사 내용 중 과정지표에 관한 비교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얼마나 잘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내용은 어떠한지, 또한 학교 밖에서 어떤 학습경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활동 및 학교밖 학습활동 내용과 질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특수교육 교육활동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 연도 간 학교활동 실태는 어떠하며, 그 차이가 있는가?

둘째, 비교 연도 간 학교밖 학습활동은 어떠하며, 그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이 2014년과 2017년에 실시한 특수교육 중단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 학년은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목적을 위해 비용 대비 조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초등과 중등이 포함된 중요 연령대로 3개의 연령 코호트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3년 주기로 특수교육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패널 구성은 2014년 공교육 기관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들을 조사 대상을 설정하였고, 차기 조사 즉 2017년 특수교육 중단조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 하에 2014년 특수교육 중단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장애 유형, 학교유형, 그리고 성별을 고려한 층화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1,126명을 대상으로 표집된 학생들의 소속학교장, 담임교사(또는 특수학급 담당교사), 학부모(또는 보호자)가 자동적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중에서 875명 학생의 소속학교장, 교사, 보호자들은 참여 동의를 거친 후 패널에 참여하였다. 2017년도 특수교육 중단조사에서는 패널의 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변화되었으며, 664명 학생들의 보호자, 소속학교급 교사, 소속학교급 관리자 등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교사와 보호자이었으며, 구체적인 인적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인적 특성

구분		2014년	2017년
		명(%)	명(%)
보호자	특수학교	293 (33.5)	253 (38.1)
	특수학급	453 (51.8)	297 (44.7)
	일반학급	129 (14.7)	114 (17.2)
	소계	875 (100.0)	664 (100.0)
교사	특수학교	293 (33.5)	263 (42.6)
	특수학급	453 (51.8)	285 (46.1)
	일반학급	129 (14.7)	70 (11.3)
	소계	875 (100.0)	618 (100.0)

2. 조사 도구

본 연구목적에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안수경 외(2012)의 ‘특수교육 중단 조사 기초연구’에서 개발된 과정지표이다. 2013년에 400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보호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설문지를 최종화한 후 2014년 특수교육 중단조사와 2017년 특수교육 중단조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학교활동에 얼마나 잘 참여하였는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 밖에서 어떤 학습경험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교활동 중 교육내용과 학교밖 학습활동을 발췌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특수교육 중단조사의 과정지표 중 학교활동과 학교밖 학습활동

영역	조사내용	문항 수	응답자	
학교활동	관련서비스 지원	1	교사	
	성취도 평가 방법	1		
	지역사회 체험학습활동의 횟수	1		
	학교밖 활동	방과후교육 참여 정도	1	보호자
		가정학습과제 부여 빈도	1	
		통학방법	1	
가정에서의 학습활동 시간		1		
학원에서의 학습활동 시간		1		
사설치료센터에서의 학습활동 시간		1		
학교밖 활동	복지관에서의 학습활동 시간	1	보호자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에서의 학습활동 시간	1		
	기타 학교 밖 학습활동 시간	1		

3. 자료 수집

2014년과 2017년 특수교육 중단조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인터넷조사와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인터넷 설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에게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들 중 패널 학생의 학교유형별 혹은 장애유형별로 서로 다른 문항이 적용될 때에는 조건을 설정하여 해당 문항만 교사에게 보이도록 설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보호자의 설문조사에서는 보호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패널 탈락 최소화를 위하여 훈련된 조사전문원이 사전 연락 후 직접 찾아가 설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 문제에 맞춰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학교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수, 백분율, 유관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밖 학습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수, 백분율,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값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 표시를 하여 나타냈다.

III. 연구 결과

1. 학교활동

1) 관련서비스

관련서비스에 대해 201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4년도와 2017년도는 동일하게 치료지원, 특수교육보조원, 통학지원, 보조공학기기 순으로 관련서비스를 많이 받았다고 나타났다. 두 비교 연 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관련서비스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소속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는 2014년도와 비교해 2017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14년도와 동일하게 2017년도에도 특수학교에서는 치료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관련서비스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특수학급에서는 2014년도와 비교해 2017년도 중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패널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로 올라가면서 통학지원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일반학급에서는 2014년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학급에서는 학년의 상관없이 관련서비스를 받지 않은 수가 가장 많았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관련서비스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활동 및 학교밖 학습활동에 대한 중단적 연구: 317
2014년과 2017년 비교

<표 3> 패널의 관련서비스 비교 (단위: 명, %)

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받지 않음	5 (2.7)	6 (3.4)		5 (3.1)	8 (5.0)		14 (7.1)	11 (6.2)		18 (7.1)	17 (10.1)		26 (9.8)	12 (7.6)		40 (17.5)	26 (18.7)	
특수교육 보조원	44 (24.2)	46 (26.0)		39 (24.2)	38 (23.8)		42 (21.4)	39 (21.9)		75 (29.5)	47 (27.8)		63 (23.9)	43 (27.2)		52 (22.7)	25 (18.0)	
치료 지원	70 (38.5)	60 (33.9)		56 (34.8)	49 (30.6)		64 (32.7)	53 (29.8)		84 (33.1)	53 (31.4)		87 (33.0)	48 (30.4)		51 (22.3)	32 (23.0)	
보조공학 기기	7 (3.8)	11 (6.2)	2.4	7 (4.3)	12 (7.5)	5.6	10 (5.1)	8 (4.5)	1.1	8 (3.1)	4 (2.4)	1.9	9 (3.4)	0 (0.0)	11.9*	5 (2.2)	2 (1.4)	3.2
통학 지원	46 (25.3)	41 (23.2)		37 (23.0)	44 (27.5)		48 (24.5)	51 (28.7)		34 (13.4)	21 (12.4)		30 (11.4)	31 (19.6)		50 (21.8)	39 (28.1)	
기타	10 (5.5)	13 (7.3)		17 (10.6)	9 (5.6)		18 (9.2)	16 (9.0)		35 (13.8)	27 (16.0)		49 (18.6)	24 (15.2)		31 (13.5)	15 (10.8)	
구분	일반학급									전체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2017	χ^2						
받지 않음	10 (16.7)	9 (24.3)		21 (35.6)	12 (38.7)		18 (42.9)	7 (36.8)		157 (17.9)	108 (17.5)							
특수교육 보조원	11 (18.3)	7 (18.9)		7 (11.9)	1 (3.2)		7 (16.7)	4 (21.1)		340 (38.9)	250 (40.5)							
치료 지원	16 (26.7)	8 (21.6)		11 (18.6)	7 (22.6)		4 (9.5)	1 (5.3)		443 (50.6)	311 (50.3)							
보조공학 기기	2 (3.3)	4 (10.8)	4.2	3 (5.1)	1 (3.2)	4.3	1 (2.4)	1 (5.3)	3.8	52 (5.9)	43 (7.0)	9.8						
통학 지원	7 (11.7)	2 (5.4)		7 (11.9)	7 (22.6)		5 (11.9)	5 (26.3)		264 (30.2)	241 (39.0)							
기타	14 (23.3)	7 (18.9)		10 (16.9)	3 (9.7)		7 (16.7)	1 (5.3)		191 (21.8)	115 (18.6)							

2)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에 대한 201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2014년도와 2017년도 두 연도에서 모두 ‘관찰평가’,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필평가에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 ‘내용과 난이도를 조정하여 교사가 자체 제작한 지필평가’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 시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과 난이도를 조정하여 교사가 자체 제작한 지필평가’와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지필평가에 참여하나 평가방법 조정’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두 년도 간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패널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였다.

소속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는 2014년도와 2017년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수학교에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관찰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즉, 특수학교에서는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에서 커다란 변화가 없이 관찰평가를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수학급에서는 2014년도와 비교 시 2017년도 중학교 3학년 패널 학생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때에 비해 중학교에 들어와서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지필평가에 동일한 평가 방법으로 참여’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내용과 난이도를 조정하여 교사가 자체 제작한 지필평가’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일반학급에서는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필평가에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이었다. 특히, 2014년도와 비교해 2017년도 중학교 3학년 패널 학생들과 고등학교 3학년 패널학생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갈 때에는 ‘관찰평가’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지필평가에 동일한 평가 방법으로 참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갈 때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지필평가에 참여하나 평가방법 조정’이 현저히 증가함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3) 지역사회 체험학습활동의 횟수

지역사회 체험학습활동의 횟수에 대해 201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연 1-6회, 월 1회 순으로 많았으나, 2017년도에는 월 1회, 연 1-6회 순이었다. 두 연도 간에 지역사회 체험활동의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역사회 체험활동 횟수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소속학교급으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월 1회가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월 1회가 가장 많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수학급에서는 2017년 중학교 3학년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014년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체험횟수가 월 1회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패널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지역사회 체험횟수가 주 1회 이상이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일반학급은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지역사회 체험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일반학급에서는 학년에 상관없이 연 1-6회가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학급에서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지역사회 체험횟수가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4) 방과후교육 참여 여부

방과후교육의 참여 정도에 대해 201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패널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한다는 수가 많았으나, 2017년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수가 더 많았다. 이러한 비교 년도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교육 참여 정도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다.

소속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는 2014년도와 2017년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수학교에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패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참여가 많았다. 즉, 특수학교에서는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커다란 변화 없이 방과후 교육 참여하는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다. 특수학급에서는 2014년도 2017년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수학급에서는 학년에 상관없이 패널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을 참여하지 않는 수가 더 많았다. 즉, 특수학급에서는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방과 후 교육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학급에서는 2014년도 2017년간에 대체로 패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참여 여부에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패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 후 교육 참여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3학년 때보다 초등학교 6학년때에 패널의 방과 후 참여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줄어들음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4> 패널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 비교 (단위: 명, %)

평가 방법	특수학교									특수학급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관찰 평가	85	74	1.7	79	61	6.7	98	89	5.6	111	74	2.4	101	51	15.7*	82	62	2.6
	(67.5)	(70.5)		(66.4)	(60.4)		(59.0)	(62.7)		(46.8)	(44.3)		(38.7)	(35.4)		(34.7)	(38.5)	
내용과 난이도 조정	27	24	1.7	27	21	6.7	46	38	5.6	60	44	2.4	68	19	15.7*	28	16	2.6
	(21.4)	(22.9)		(22.7)	(20.8)		(27.7)	(26.8)		(25.3)	(26.3)		(26.1)	(13.2)		(11.9)	(9.9)	
평가 방법 조정	5	2	1.7	8	5	6.7	7	5	5.6	24	12	2.4	24	14	15.7*	32	15	2.6
	(4.0)	(1.9)		(6.7)	(5.0)		(4.2)	(3.5)		(10.1)	(7.2)		(9.2)	(9.7)		(13.6)	(9.3)	
동일한 지필 평가	8	4	1.7	4	10	6.7	15	7	5.6	38	32	2.4	63	58	15.7*	89	63	2.6
	(6.3)	(3.8)		(3.4)	(9.9)		(9.0)	(4.9)		(16.0)	(19.2)		(24.1)	(40.3)		(37.7)	(39.1)	
기타	1	1	1.7	1	4	6.7	0	3	5.6	4	5	2.4	5	2	15.7*	5	5	2.6
	(.8)	(1.0)		(.8)	(4.0)		(0.0)	(2.1)		(1.7)	(3.0)		(1.9)	(1.4)		(2.1)	(3.1)	

평가 방법	일반학급						전체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2017	χ^2
관찰 평가	19	17	3.3	25	2	10.1*	6	2	8.1*	606	432	7.1
	(29.7)	(35.4)		(33.3)	(7.7)		(13.6)	(9.5)		(69.3)	(69.9)	
내용과 난이도 조정	5	7	3.3	8	1	10.1*	0	1	8.1*	269	171	7.1
	(7.8)	(14.6)		(10.7)	(3.8)		(0.0)	(4.8)		(30.7)	(27.7)	
평가 방법 조정	8	5	3.3	12	4	10.1*	3	6	8.1*	123	68	7.1
	(12.5)	(10.4)		(16.0)	(15.4)		(6.8)	(28.6)		(14.1)	(11.0)	
동일한 지필 평가	31	17	3.3	30	19	10.1*	35	12	8.1*	313	222	7.1
	(48.4)	(35.4)		(40.0)	(73.1)		(79.5)	(57.1)		(35.8)	(35.9)	
기타	1	2	3.3	0	0	10.1*	0	0	8.1*	17	22	7.1
	(1.6)	(4.2)		(0.0)	(0.0)		(0.0)	(0.0)		(1.9)	(3.6)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활동 및 학교밖 학습활동에 대한 중단적 연구: 321
2014년과 2017년 비교

<표 5> 패널의 지역사회 체험학습활동의 횟수 비교 (단위: 명, %)

횟수	특수학교									특수학급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주 1회 이상	6	9		10	10		26	26		6	6		8	12		24	32	
	(6.5)	(11.5)		(12.0)	(12.2)		(22.2)	(25.2)		(4.2)	(5.9)		(4.9)	(13.0)		(16.4)	(34.8)	
월 1회	45	34		40	42		42	50		50	44		57	48		71	38	
	(48.4)	(43.6)		(48.2)	(51.2)		(35.9)	(48.5)		(34.7)	(43.6)		(35.2)	(52.2)		(48.6)	(41.3)	
연 1~6회	33	29	8.1	30	29	4.1	45	25	6.5	73	38	4.2	78	21	20.5*	35	18	12.2*
	(35.5)	(37.2)		(36.1)	(35.4)		(38.5)	(24.3)		(50.7)	(37.6)		(48.1)	(22.8)		(24.0)	(19.6)	
연 1회	6	0		3	0		1	1		5	4		8	2		3	1	
	(6.5)	(0.0)		(3.6)	(0.0)		(0.9)	(1.0)		(3.5)	(4.0)		(4.9)	(2.2)		(2.1)	(1.1)	
전혀 참여안함	3	6		0	1		3	1		10	9		11	9		13	3	
	(3.2)	(7.7)		(0.0)	(1.2)		(2.6)	(1.0)		(6.9)	(8.9)		(6.8)	(9.8)		(8.9)	(3.3)	

횟수	일반학급									전체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2017	χ^2
주 1회 이상	6	2		3	1		3	0		92	98	
	(14.3)	(6.9)		(6.5)	(4.2)		(7.7)	(0.0)		(10.6)	(15.9)	
월 1회	9	5		13	3		3	3		330	267	
	(21.4)	(17.2)		(28.3)	(12.5)		(7.7)	(17.6)		(37.8)	(43.2)	
연 1~6회	13	14	4.6	17	8	5.2	16	9	9.1	340	191	20.0*
	(31.0)	(48.3)		(37.0)	(33.3)		(41.0)	(52.9)		(39.0)	(30.9)	
연 1회	8	2		2	4		3	4		39	18	
	(19.0)	(6.9)		(4.3)	(16.7)		(7.7)	(23.5)		(4.5)	(2.9)	
전혀 참여안함	6	6		11	8		14	1		71	44	
	(14.3)	(20.7)		(23.9)	(33.3)		(35.9)	(5.9)		(8.1)	(7.1)	

<표 6> 패널의 방과후 교육 참여 여부 비교 (단위: 명, %)

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참여 여부	예	34 (47.2)	43 (58.1)	1.7	42 (65.6)	44 (53.7)	2.1	62 (71.3)	64 (66.0)	0.6	57 (50.0)	41 (39.4)	2.5	56 (51.9)	41 (42.3)	1.9	68 (61.3)	46 (47.9)	3.7
	아니오	38 (52.8)	31 (41.9)		22 (34.4)	38 (46.3)		25 (28.7)	33 (34.0)		57 (50.0)	63 (60.6)		52 (48.1)	56 (57.7)		43 (38.7)	50 (52.1)	

구분	일반학급						전체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2017	χ^2	
참여 여부	예	27 (75.0)	23 (50.0)	5.3*	21 (52.5)	18 (43.9)	0.6	10 (43.5)	8 (29.6)	1.0	377 (57.6)	328 (49.4)	8.8*
	아니오	9 (25.0)	23 (50.0)		19 (47.5)	23 (56.1)		13 (56.5)	19 (70.4)		278 (42.4)	336 (50.6)	

5) 가정학습과제 부여 빈도

가정학습과제 부여 빈도에 대해 201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4년도와 2017년도 둘 다 거의 받아오지 않음, 가끔 받아옴, 자주 받아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2014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거의 받아오지 않음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가끔 받아옴과 자주 받아옴이 현저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 연도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학습과제 부여가 적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소속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는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학습과제 부여 빈도수가 감소하였다. 특히 패널이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가정학습 과제를 받아오는 정도가 급감하였다. 특수학급에서는 2014년도 2017년도 간에 통계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수학급에서는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학습과제 빈도수가 급감하였다. 특히 거의 받아오지 않음이 더 많아지고, 자주 받아옴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일반학급에서도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소속학교급과 마찬가지로 가정학습 과제를 받아오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거의 받아오지 않음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자주 받아옴이 현저히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6) 통학 방법

통학방법에 대해 201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4년도와 2017년도 둘 다 도보, 보호자의 승용차, 학교버스, 대중교통수단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2014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도보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수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교 연도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통학방법으로 도보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소속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는 2014년도와 2017년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특수학교에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학교버스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통학 방법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특수학급에서도 2014년도와 2017년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특수학급에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도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보가 감소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반학급에서는 2014년과 2017년도 간에 패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학급에서도 도보로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지만, 고등학교 때에 들어와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2. 학교밖 학습활동

패널 학생들의 학교밖 학습활동에 대해 2014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4년도와 2017년도 둘 다 가정, 사설치료센터, 학원 복지관 순으로 학교 밖에서 학습활동 시간을 많이 보냈다. 2014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교밖 학습활동이 감소하였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밖에서 학습활동 하는 시간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다.

소속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는 2014년에 비해 2017년도에 가정에서 학습활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에서의 학습활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때로 올라가면 패널들이 전체적으로 이전 때보다 학교 밖에서 학습활동 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수학급에서는 2014년도에 2017년에 학원과 사설치료센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습활동 시간이 감소하였다. 즉, 패널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과 사설치료센터에서 보내는 활동 시간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학급에서는 2014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가정에서 학습하는 활동 시간이 감소하였다. 즉,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에서 학습하는 활동 시간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9>와 같다.

32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표 7> 패널의 가정학습과제 부여 빈도 비교 (단위: 명, %)

빈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자주 받아옴	11	9	3.6	7	10	6.9	18	8	16.0*	41	17	15.7*	23	12	8.3*	21	8	9.3*
	(15.3)	(12.2)		(11.1)	(12.2)		(20.7)	(8.2)		(37.3)	(16.3)		(20.9)	(12.4)		(19.3)	(8.3)	
가끔 받아옴	15	8		18	11		27	16		37	37		40	25		31	19	
	(20.8)	(10.8)		(28.6)	(13.4)		(31.0)	(16.5)		(33.6)	(35.6)		(36.4)	(25.8)		(28.4)	(19.8)	
거의 받아오지 않음	42	53	37	55	41	67	27	47	40	54	49	57						
	(58.3)	(71.6)	(58.7)	(67.1)	(47.1)	(69.1)	(24.5)	(45.2)	(36.4)	(55.7)	(45.0)	(59.4)						
잘 모르겠음	4	4	1	6	1	6	5	3	7	6	8	12						
	(5.6)	(5.4)	(1.6)	(7.3)	(1.1)	(6.2)	(4.5)	(2.9)	(6.4)	(6.2)	(7.3)	(12.5)						

빈도	일반학급						전체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2017	χ^2
자주 받아옴	22	19	5.3	17	5	11.6*	6	2	13.2*	166	90	59.5*
	(59.5)	(41.3)		(42.5)	(12.2)		(27.3)	(7.4)		(25.5)	(13.6)	
가끔 받아옴	13	17		13	14		11	5		205	152	
	(35.1)	(37.0)		(32.5)	(34.1)		(50.0)	(18.5)		(31.5)	(22.9)	
거의 받아오지 않음	2	9	7	18	5	18	250	378				
	(5.4)	(19.6)	(17.5)	(43.9)	(22.7)	(66.7)	(38.5)	(56.9)				
잘 모르겠음	0	1	3	4	0	2	29	44				
	(0.0)	(2.2)	(7.5)	(9.8)	(0.0)	(7.4)	(4.5)	(6.6)				

<표 8> 패널의 통학 방법 비교 (단위: 명, %)

통학 방법	특수학교									특수학급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도보	3 (4.2)	4 (5.4)		5 (7.7)	5 (6.1)		6 (6.7)	4 (4.1)		57 (50.0)	50 (48.1)		62 (56.4)	47 (48.5)		49 (43.8)	30 (31.3)	
대중교통수단	2 (2.8)	2 (2.7)		1 (1.5)	6 (7.3)		7 (7.9)	10 (10.3)		6 (5.3)	6 (5.8)		7 (6.4)	16 (16.5)		31 (27.7)	35 (36.5)	
학교버스	39 (54.2)	45 (60.8)	1.6	42 (64.6)	49 (59.8)	4.1	49 (55.1)	55 (56.7)	1.9	8 (7.0)	7 (6.7)	0.9	5 (4.5)	2 (2.1)	7.6	2 (1.8)	1 (1.0)	3.9
보호자의 승용차	27 (37.5)	21 (28.4)		16 (24.6)	18 (22.0)		18 (20.2)	22 (22.7)		41 (36.0)	37 (35.6)		35 (31.8)	29 (29.9)		29 (25.9)	29 (30.2)	
매일 통학하지 않음	1 (1.4)	2 (2.7)		1 (1.5)	4 (4.9)		9 (10.1)	6 (6.2)		2 (1.8)	4 (3.8)		1 (0.9)	3 (3.1)		1 (0.9)	1 (1.0)	

통학 방법	일반학급									전체		
	2014 (초3)	2017 (초6)	χ^2	2014 (초6)	2017 (중3)	χ^2	2014 (중3)	2017 (고3)	χ^2	2014	2017	χ^2
도보	21 (56.8)	31 (67.4)		28 (70.0)	24 (58.5)		15 (65.2)	5 (68.5)		246 (37.2)	200 (30.1)	
대중교통수단	1 (2.7)	1 (2.2)		1 (2.5)	6 (14.6)		2 (8.7)	12 (44.4)		58 (8.8)	94 (14.2)	
학교버스	2 (5.4)	2 (4.3)	3.0	1 (2.5)	1 (2.4)	4.9	0 (0.0)	0 (0.0)	13.5*	148 (22.4)	162 (24.4)	14.2*
보호자의 승용차	11 (29.7)	12 (26.1)		9 (22.5)	10 (24.4)		6 (26.1)	9 (33.3)		192 (29.0)	187 (28.2)	
매일 통학하지 않음	2 (5.4)	0 (0.0)		1 (2.5)	0 (0.0)		0 (0.0)	1 (3.7)		18 (2.7)	21 (3.2)	

<표 9> 패널의 학교밖 학습활동 비교 (단위: 시간)

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2014 (초3)	2017 (초6)	t	2014 (초6)	2017 (중3)	t	2014 (중3)	2017 (고3)	t	2014 (초3)	2017 (초6)	t	2014 (초6)	2017 (중3)	t	2014 (중3)	2017 (고3)	t
가정	2.7 (4.3)	0.6 (1.2)	3.3*	3.9 (5.2)	1.5 (2.7)	2.9*	3.2 (4.3)	1.3 (2.1)	3.2*	4.1 (5.0)	2.5 (3.6)	2.7*	3.3 (4.6)	2.1 (3.4)	1.9	2.2 (2.2)	1.7 (3.3)	1.3
학원	1.1 (2.0)	0.3 (1.8)	2.0*	0.7 (1.6)	0.8 (4.5)	-0.9	0.9 (1.7)	0.8 (2.3)	0.2	2.3 (3.7)	1.9 (3.4)	0.8	3.6 (3.8)	1.1 (2.7)	4.6*	2.1 (2.8)	0.8 (2.5)	3.0*
사설 치료 센터	4.4 (6.7)	2.9 (4.0)	1.5	3.2 (3.1)	1.6 (6.7)	1.5	2.8 (3.1)	1.1 (2.1)	3.5*	3.8 (11.0)	2.0 (2.9)	1.6	2.8 (3.4)	1.3 (2.3)	3.3*	1.5 (1.7)	0.8 (1.4)	3.2*
복지관	6.8 (26.1)	1.6 (4.7)	1.2	2.1 (2.6)	1.1 (2.8)	1.8	1.6 (2.7)	0.6 (1.5)	2.4*	2.0 (2.7)	2.4 (14.8)	-0.2	2.3 (2.6)	0.7 (1.5)	4.2*	1.6 (3.1)	0.8 (2.2)	1.8
스포츠 센터나 문화센터	1.8 (3.6)	0.4 (1.1)	2.1*	1.5 (4.2)	0.3 (1.0)	1.4	1.5 (1.9)	0.5 (1.5)	2.6*	1.3 (1.7)	0.6 (1.6)	2.2*	1.1 (1.7)	0.6 (1.6)	1.8	1.2 (1.9)	0.7 (1.8)	1.7
기타	2.9 (4.7)	0.1 (0.6)	3.1	1.9 (4.7)	0.8 (3.5)	1.2	1.4 (3.2)	0.5 (1.8)	1.4	1.4 (4.3)	0.2 (1.0)	1.9	1.5 (3.1)	0.4 (1.2)	2.2*	0.9 (1.8)	0.3 (1.2)	1.9

구분	일반학급						전체					
	2014 (초3)	2017 (초6)	t	2014 (초6)	2017 (중3)	t	2014 (중3)	2017 (고3)	t	2014	2017	t
가정	5.5 (6.9)	2.6 (3.5)	2.5*	5.0 (3.9)	2.1 (3.0)	3.6*	6.0 (6.4)	2.6 (4.1)	2.1*	3.6 (4.7)	1.8 (3.1)	7.6*
학원	3.7 (3.1)	3.6 (5.0)	0.2	7.5 (4.3)	2.7 (4.1)	4.4*	2.9 (4.1)	1.6 (2.8)	1.2	2.6 (3.6)	1.3 (3.3)	5.8*
사설 치료 센터	2.7 (2.5)	1.1 (1.9)	3.1*	1.6 (1.1)	0.7 (1.3)	2.9*	2.0 (2.7)	0.7 (2.9)	1.3	2.9 (5.9)	1.5 (3.4)	4.6*
복지관	0.9 (1.6)	0.1 (0.7)	1.8	0.9 (0.8)	0.1 (0.3)	3.3*	0 (0.0)	0 (0.0)	0.0	2.3 (9.2)	1.0 (6.2)	2.3*
스포츠 센터나 문화센터	1.3 (1.8)	1.2 (4.5)	0.0	2.0 (2.7)	0.9 (2.2)	1.4	1.2 (2.4)	0.6 (1.4)	1.1	1.4 (2.4)	0.6 (1.9)	4.7*
기타	0.5 (1.0)	0.2 (0.8)	1.2	1.7 (1.8)	0.5 (2.5)	1.2	0.1 (0.3)	0.4 (2.3)	-0.5	1.4 (3.3)	0.4 (1.8)	4.6*

※ ()는 표준편차

IV. 논 의

1. 논의

본 연구는 2014년도와 2017년도 특수교육 중단조사 비교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활동 실태를 확인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활동 및 학교밖 학습활동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정리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활동의 교육내용은 관련서비스, 학업성취도 평가방법, 지역사회 체험 학습활동의 횟수, 방과후교육 참여 정도, 가정학습과제 부여 빈도, 통학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치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련서비스는 두 연도 모두 치료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특수교육보조원, 통학지원의 순이었다. 특수학교는 치료지원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던 반면에 일반학급은 관련서비스를 받지 않는 수가 많았다. 두 비교 연도 간에 관련서비스에서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도 특수교육 중단조사와 비교 시 특수학급에서 2017년도 중학교 3학년 패널 학생들이 2014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통학지원이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패널 학생들의 통학방법이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증가함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수보다 중학교 특수학급의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할 때 도보 거리였던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함을 추측할 수 있겠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패널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패널 학생들과 달리 학교버스 이용이 많았으며, 이는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박진수와 정동영(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할 때 특수교육, 자녀의 장애, 학교 명성, 통학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통학편의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함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에서는 두 연도 모두 모두 ‘관찰평가’,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필평가에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 ‘내용과 난이도를 조정하여 교사가 자체 제작한 지필평가’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특수학교에서는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찰평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는 패널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든 교육과정에서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필평가에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특수학급 및 일반

학급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패널 학생들은 아무런 수정 없이 일반교육과정 내용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필평가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제 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내용과 평가가 중등(중·고) 과정에서는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내용을 배우고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서선진과 최종근(2017)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줬다. 2017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윤종욱, 최하영, 서유진, 권미은, 김라경, 오영석, 2017)에서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유로 ‘학생의 장애로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하기 어려움’과 ‘평가기준 마련의 곤란’을 꼽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특수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을 위한 내신 위주의 수업 중심 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평가를 계획, 준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장애학생들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정은주, 류기성, 2015). 따라서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학생들의 개별화교육목표의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에 대한 평가 지침 마련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사회 체험학습활동의 횟수는 두 연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역사회 체험학습활동의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특수학급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패널 학생들의 지역사회 체험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자유학기제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강조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백지혜, 박재국, 2018, 이정은, 손지영, 2017, 장영민, 2015). 그러나 방과후교육 참여 정도와 가정학습과제 부여 빈도는 2014년도 특수교육 중단조사와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교육 참여율과 가정학습과제를 받아오는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특히 방과후교육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는 방과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는 방과후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학생의 방과후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사실은 치료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거나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활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개성 신장의 기회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김양화, 김남순, 2013). 따라서 방과후 학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학습활동은 가정, 학원, 사설치료센터, 복지관,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 기타로 나뉘어져 있다. 패널 학생들은 가정에서 1.8시간, 사설치료센터에서 1.5시간, 학원에서 1.3시간을 학습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배치형태에

따라 일반학급은 학원, 가정 순으로 특수학교는 시설, 가정 순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2014년도 특수교육 중단조사와 비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밖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을 볼 수가 있었다. 이는 박미화(2010)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년이 낮을수록 방과 후 재활, 치료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학교밖 학습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사교육 비용이 줄어든다는 사실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대신 학교에서 부모들의 교육적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데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본 조사는 2014년 1차 중단연구 시작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되는 2차 중단연구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수교육의 학교활동 및 학교밖 학습활동 변화를 살펴보는 첫 번째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중단연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령기 동안의 성장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특수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수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학교활동 및 학교밖 학습활동 과정 요소들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 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 지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구미숙 (2013). 장애학생의 학습환경 형평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6(2), 47-68.
- 김남진, 김영희 (2005). 제주지역 정신지체아 부모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 조사. **교육과학연구**, 7(2), 129-150.
- 김양화, 김남진 (201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언론기사 분석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73-300.
- 노선옥, 강영택, 금미숙, 안수경, 이미선, 이영숙, 이정현 (2011).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노선옥, 김현진, 김은숙, 박성우, 신재훈, 이정현 (2008). **2008 특수교육 실태조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박미화 (2010). 학교 급별 장애학생 부모의 통합교육 서비스 만족도 비교. **시각장애연구**, 26(2), 151-172.
- 박진수, 정동영 (2013). 특수교육 대상 학생 부모의 자녀 고등학교 선택요인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6(2), 25-45.
- 백중남, 황태우, 박은송, 김삼섭 (2008).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정서장애학교 학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3(2), 179-197.

33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 백지혜, 박재국 (2018).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및 특수교사의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20(1), 69-106.
- 서선진, 최종근 (2017). 시간제 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평가 실태. **특수교육학연구**, 52(3), 135-159.
- 안수경, 김성식, 김호진, 박지연, 최종근, 신동인 (2014). **2014 특수교육 종단조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안수경, 김성식, 최종근, 박지연, 김호진, 김영표 (2012). **특수교육 종단조사 기초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우이구 (2015).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방향 및 내용.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2, 1-6.
- 윤종욱, 김경화, 권현수, 오영석 (2017). **2017 특수교육 종단조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윤종욱, 최하영, 서유진, 권미은, 김라경, 오영석 (2017).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이정은, 손지영 (2017). 특수학교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현황 및 실행전략 분석: 2016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6(3), 105-131.
- 장영민 (2015). 학교와 지역기관 간 교육적 협력을 통한 진로·직업교육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지적장애학생들의 인생태도와 직업준비에 미치는 효과.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2), 219-237.
- 정은주, 류기성 (2015).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이 인식한 특수학급 학생의 학업평가 실태 -서울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이론과 실천**, 16(2), 573-596.
- 정주영, 정유진 (2017).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통합교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 의의. **통합교육과정연구**, 11(4), 29-60.

A Comparison of 2014 and 2017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for In School Activities and Out of School Activities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Kim, Kyeong-Hwa

Konkuk University

Kwon, Hyun-Soo

Sejong University

Oh, Young-Seok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how in school activities and out of school activities have changed as school years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get higher through the comparison of 2014 and 2017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According to the findings obtained from the comparisons, for the in school activities,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reas of related services and achievement evaluation methods, while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reas of community based activities, after school programs, homework, and commute to school. The hours spent from the out of school activities in 2017 statistically decreased the ones in 2014. These findings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resource to explain how the content and the quality of what students go through the in school and out of school activities will influence special education outcome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students,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in school activities, out of school activities

논문 접수: 2018. 05. 14 심사 시작: 2018. 05. 15 게재 확정: 2018. 06. 25